

AUTHOR 이환봉

TITLE 성경권위에 관한 개혁주의의 견해

IN 미스바

vol. 15 (1989): 78-101

성경권위에 관한 개혁주의의 견해

이 환 봉

신학과 조교수, 조직신학

목 차

- I. 서 론
- II. 개혁자들 : 루터와 칼빈
 - 1. 루터
 - 2. 칼빈
- III.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2. 네덜란드 신앙고백
- IV. 결 론

I. 서 론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신적 권위는 사도시대부터 초대교회와 중세를 통하여 종교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회의 변함없는 가르침이 되어왔다. 사도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적 영감까지도 인정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에 권위가 있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와 영감은 상호관련하여 생각해야한다. 이는 신적인 영감이 성경본문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점을 부정할 때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

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성경권위에 대한 교리는 항상 성경 영감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 더 나아가서 신적인 영감은 성경의 무오성을 성경의 필수적인 속성으로 포함시킨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영감은 성경의 전체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과 세목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철저한 신뢰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²⁾ 비록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는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데 붙어 있다.³⁾ 그러나 역사적 교회가 성경의 무오성을 정말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도전을 받고 토론되어 왔다. 일부 비평가들은 20세기의 몇몇 근본주의자들만이, 이를테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지, 워필드, 메이첸과 같은 사람들만이 성경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든 오류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한다.⁴⁾ Jack Rogers와 Donald Mckim은 개혁자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논박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성경무오성의 기

1) Philip E. Hughes, "Some Observation on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Studying the New Testament Today」 (ed, J.H.Skilton;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76.) p. 19.

- 2) Benjamin B. Warfield는 영감과 무오성에 대한 핵심적인 교회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적절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성령의 영향 아래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왔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고 거기에 인간적인 기원의 표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말이다. 이 공동저작이란 개념은 성령의 감독하심이 인간저자들이 어휘를 선택하는데까지 미친다는 것(측자영감)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여러문제 가운데서 성경기자들이 도처에 전제를 삼고 있는 성경에 대해 주장하는 그 전적인 신뢰성(무오성)을 확고히 하면서, 신적인 저작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작품을 보호한다고 교회는 항상 인정해왔다.” (B.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73.) 측자영감의 교리가 받아쓰기의 이론을 비난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측자영감”을 옹호하는 자를 그 영감의 양식이 기계적으로 받아쓰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 재차 항의할 필요는 없다. A.A. Hodge & B.B. Warfield, 『Inspirat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 pp. 18~23 ; cf. B.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421~422 ; J.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 Eerdmans, 1958, pp. 78 ff 사실 영감의 양식은 대체로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다. 그리고 “측자영감”은 어쨌든 그 사상이 어휘에 있어서만 영감되고 그 단어 자체는 그 영감된 의미나 문맥과는 상관없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측자영감”이란 용어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엄격히 말해서 성경적 영감을 완전하게 부를 수 있는 현대용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측자영감교리에 반영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의문이라고 해서 안된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 문서 원본을 기록한 기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지배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문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봐야 하고, 글들이 주장하는 것마다 그것이 자연적이든, 역사적이든, 신학적이든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로 받아야 한다.” (J.I.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Inerrancy and the Church』, ed J.D. Hannah ; Chicago : Moody Press, 1984, p. 156.) 사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교리에 불만을 느껴온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정당하게 정확하고 (infallible), 무오(inerrant)하다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infallible은 오해하게 하거나 그르치게 되는 일이 없는 속성을 뜻하므로 분명히 말해서 성경이 매사에 확실하고, 안전하고, 믿음만한 규칙과 지침이라는 사실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inerrant도 모든 오류와 실수에서 벗어나 있는 속성을 뜻하므로 성경이 그 모든 주장에 있어서 전적으로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호한다.”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Inerrancy』 그러나, 성경의 정확무오란 것이 사진으로 찍은 정확함이나 속기를 쓴 정확성과 일치해서는 안된다. J. Murray : 『완전히 확실한, 그러나 현학자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닌』,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London : Evangelical Press, 1979, p. 30 ; A.A. Hodge & B.B. Warfield : “accuracy”이지, “exactness”가 아니다. 『Origins of the Synoptic Gospels』, Grand Rapids : Eerdmans, 1963, pp. 109 ff. 같은 맥락에서 『성경무오성에 대한 시카고 선언』은 이 점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사용과 목적에서 동떨어져 있는 사실과 오류의 표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오성이 다음과 같은 성경의 현상으로 인해서 무시된다고 보지 않는다. 즉, 현대기술적인 정확함의 결여, 불규칙한 문법이나 철자법, 관찰에 의한 자연의 묘사, 허위보도, 과장법과 많은 숫자의 사용, 제목에 따른 자료배열, 자료의 상이한 선택, 혹은 자유로운 인용사용과 같은 현상 말이다.” (Article X III, 『Inerrancy』, p. 496.) 그러나, 성경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전제하에서 일부 성경비평가들은 성경이 그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정확무오하지만, 그 현상적인 문제들(역사와 과학)은 오류가 있고 역사비평이라는 비평적 학문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infallible”과 “inerrant”를 구별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성경은(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무오(inerrant)하지 않지만, 신앙과 생활의 측면에서) 정확하다(infallible)는 것이다. (cf. S.T. Davis, 『The Debate about the Bible』,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7.)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정확무오성이 역사와 과학분야를 제외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구속적인 주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Article X III, 『Inerrancy』, p. 462) 확실히 성경은 그 자체로서 과학이나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한, 성경은 항상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성경의 진의성을 부분과 전체에 있어서 확고히 믿는다.
- 3) Cf. H. Ridderbos,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Holy Scripture』, p. 22. K. Runia, “The Authority of Scripture”, 『CTJ』 4/2 (Nov, 1960), p. 178. H. Lind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39. J.I. Packer, 『Beyond the Battle for the Bible』 p. 17. F.W. Grosheide, 『Schrift gezag』 Schild en Pijl, I (1918). p. 2. K. Schider, 『On Woord en kerk』, Vol. III, 『Tegenstrijdigheden in den Bijbel ?』, (1919), pp. 50~95.
- 4) Cf. E. Sandeen, 『Roots of fundamentalism : British and American Millenarianism 1800-1930』,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pp. 111~114.

원은 17세기의 개혁자들의 추종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특별한 스콜라적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⁵⁾ Clark Pinnock도 주장하기를 “성경이 완전무결하다는 설은 아주 최근의 확신이지 고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⁶⁾ 그러나 프린스턴의 신학자든지 후기 개혁신학자든지 그 누구도 무오성의 교리를 고안하지 않았다. 사실 성경의 무오성은 이미 신약성경과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증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성경조차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⁷⁾ 더우기 자기들의 신학에서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한 R. Bultmann⁸⁾ 과 E. Brunner⁹⁾와 F. C. Grant¹⁰⁾ 같은 과격한

비평가들까지도 성경의 무오성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2세기의 교부들과 변증가들도 성경무오성이 성경 자체의 신빙성 있는 교리라고 믿고 가르쳤다. 교부들의 그러한 입장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W. Colkine¹¹⁾, G. D. Barry¹²⁾, W. Sandy¹³⁾와 S. R. L. Gaussen¹⁴⁾과 같은 성경학자들의 적절한 문헌연구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후에 성경무오의 교리는 종교개혁 때 되살아나게 되었다. 개혁자들은 성경 전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쳤다. 비록 K. Barth 자신은 성경이 “내재하는

- 5) Jack Rogers &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An Historical Approach」,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p. Xi. (preface), 147 ff. ; cf. John D. Woodbrige의 비평인 「Biblical Authority : Toward an Evaluation of the Rogers and Makim Proposal」에 실려있다. 「Trinity Journal」, 1 (1980), pp. 165~236. Makim의 답변은 「TSF Bulletin」, (April, 1981)에 실려있고, Woodbrige의 확대된 비평인 「Biblical Authority : A Critique of the Rogers/Mckim Proposal」은 Zondervan 출판사에서 나왔다.
- 6) Clark Pinnock, 「Fruits Worthy of Repentance」 「Sojourners」, (Dec, 1977.), p. 29.
- 7) Cf John W. Wenham, 「Christ and the Bibl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p. 27 : “축자영감 교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종의 축자영감을 가르쳤음이 분명하다는 신중한 진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분이 권위를 기자들 보다는 오히려 작품에 두는 것을 볼 때 그러하다.”
Stewart Custer, 「Does Inspiration Demand Inerrancy ? 」, (Nutley, News Jersey : The Craig Press, 1968.), pp. 13~60 Wayne A. Grudem, 「Scripture's Self-Attestation and the Problem of Formulation a Doctrine of Scripture」, 「Scripture and Truth」, pp. 19~59. Robert P. Lightner, 「The Saviour and the Scriptures」, (Publishing Co. 1966).
- 8) Rudolph Bultmann, 「Jesus and the Word」, (New York : Scribner's, 1934.), p. 61. : “예수는 율법(구약)의 권위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데는 당대의 서기관들과 항상 의견을 같이 했다.…… 예수가 확실히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 …… 그가 말하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라’고 했다(마 5 : 17~19)”.
9)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Trans. Olive Wyon ;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0), p. 107. “축자영감” 교리는 이미 기독교 이전의 유대주의에 알려졌고 아마 바울과 다른 신도들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 10) Frederick C. Grant,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ought」, (New York : Abingdon Cokesbury, 1950.), p. 75. “어디에서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빙성이 있고 정확무오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 11) McClintock & Strong, 「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Literature」, Vol.I. (New York : Harper, 1892), pp. 315 ff.
- 12) George Duncan Barry,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Holy Scripture : A Study in the Literature of the First Five Centuries」, (New York : Macmillan , 1919).
- 13) William Sandy, 「Inspiration : Eight Lectures on the Early History and Origin of the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London : Longmans, 1903).
- 14) S.R.L. Gaussen, 「Theopneustia : The Bible, Its Divine Origin and Inspiration」(trans. David D. Scott ; New York : Blanchard, 1859).

모든 종류의 비평을 받기 쉬운" 15)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결코 개혁자들을 성경의 오류를 지지하는 자들과 동일한 노선에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Barth는 자신이 무오성과 같다고 보는 독자영감의 교리를 개혁자들이 받아들였다고 인정한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Rogers와 McKim은 성경의 오류성이 개혁자들(Luther, Calvin)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The Belgic Confession of Faith,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현대 비평가들 (Bultmann, Käsemann, Ebeling)도 성경의 오류성과 역사비평주의가 심지어 개혁자들의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18)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신앙이 성경의 사화에 나오는 역사적인 것에 근거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보장(바울의 말로 하자면 율법에 속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야 할 신앙에 대한 종교개혁적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19)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역사비평주의와 종교개혁 사이의 어떤 관계를 수립하려는 현대 비평가들의 이러한 신학적인 시도 배후에는 역사비평주의를 수락하려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전적인 영감과

무오성을 부인하려는 의도적인 역사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비평가들은 자기네들의 성경오류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역사비평주의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공공연하게 개혁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적 왜곡을 고려해 볼 때 개혁자들의 성경권위에 대한 혼동된 역사적 기록들을 바로 잡고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필자는 지난 3세기에 걸쳐 교회의 역사적 신앙으로 받아들여 개혁자들의 성경권위에 대한 개념을 현대의 신학적 문맥 속에서 재확인하고자 한다.

II. 개혁자들 :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 당시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은 심각하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어떤 것을 첨가할 수 있는가, 혹은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인가 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서 개혁자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와 '성경의 충족성'(Sufficiency of Scriptura)의 원리가 있었다. 따라서 교회나 교황이 성경의 권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직접 관심이

1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2 p. 507.

16)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2 p. 520.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그러니까 독자영감에 관한 진술을 의심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근거로 받고 있는 바울의 말에 명백하게,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공식을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때로는 성경기자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사용해가면서 받아들였다.”

17) Jack Rogers &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p. 115~116, 122, 200~218.

18) Gerhard Ebeling, “The Significance of the Critical Historical Method for Church and Theology in Protestantism”, 「Word and Faith」(London: SCM Press Ltd, 1963), pp. 17~61를 보라.

19) James Barr, “Introduction”, in P. Stuhlmacher, 「Historical Criticism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London: SPCK, 1979). p. 10.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Sola Scriptura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루터

마틴 루터(1483-1546)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신적 기원에서 끌어내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의 신성함에 대해 말한 여러 문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²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요²¹⁾,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²²⁾

고 거듭 확인했다.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에게서 끌어낼 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질의 신적 권위를 지닌다. 실제적으로 루터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경만이 교회교리의 원천과 규범이요, 교회의 모든 신학의 인식의 원리(Principium Cognoscendi)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의 교리는 성경 이외에 어디에서도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이다.²³⁾ 루터는 신학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성경에 최고 수위권을 부여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스스로 가장 명료하고,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종합적인 권위이며, 그

20) Martin Luther, 「Samtlich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Johann Georg Walch, 1 Auflage (Halle : Johann Justinus Gebauer, 1740~53), (다음 인용부터는 W1으로 표기함), 8. 1303 :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22~3 :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Martin Luther, 「Samtlich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Johann Georg Welch, 2. Auflage Cst. Louis : Concordia : a, 1818~1930). (다음 인용부터는 W2로 표기함)

9. 1808 :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말씀을 읽는다” ; 9. 1818 : “성경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이다.” ; cf. 4. 2118 ; 9. 86, 1770 ; 7. 1541 ; 12. 637.

루터의 성경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여러 학자들이 포괄적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Michael J. Reu, 「Luther and the Scriptures」, (Columbus, Ohio : Wartburg Press, 1944). Rupert Davis, 「The Problem of Authority in the Continental Reformers : A Study in Luther, Zwingli, and Calvin」, (London : The Epworth Press, 1946). Willer J. Kooiman, 「Luther and the Bible」, (trans. John Schmidt ; Philadelphia : Muhlenberg, 1961).

Julius Kostlin, 「The Theologer of Luth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errancy」, (Philadelphia : Lutheran Publication Society, 1897). A. Skevington Wood, 「Captive to the Word : Martin Luther, Doctor of Sacred Scripture」, (Grand Rapids : Eerdmans, 1969).

Robert D. Preus, “Luther and Biblical Infallibility”, 「Inerrancy and the Church」, pp. 99~142.

필자는 이들의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이끌어 내었는데 그것은 W1과 W2와 WA(「Kritische Gesamtausgabe」)에 의한 것이다.

21) W1, 9. 1071 : “성경은 하나님의 책 또는 말씀이다.” ; 10. 1018 :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자신의 증언이다.” ; 22. 1069 :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써 놓으셨다.” ; cf. W1, 9. 1238, 1830 ; 22. 5 ; 9. 770 W2, 3. 1889 : “성경전체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 cf. W2, 15. 1481.

22) W1, 1. 1422 : “하나님은... 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 3. 21 : “당신은 성경본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도록 다루어야 한다.” 14. 491 : “하나님께서 전성경을 말씀 하셨습니다.” ; W2, 1. 1800 :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고 알지 못하게 할 저주스런 불신이고 가증스런 육체다.”
cf. W1, 2. 901 ; 3. 373 ; 9. 1800, 1845, 1853 ; W2, 7. 2095.

23) W2. 9. 87 ; Martin Luther,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 Bohlaus, 1833~) (다음 인용부터 WA로 표기함) 10. i. 80 ; W2, 1. 1290 ; 3. 325, 503 ; 8. 1110 ; 9. 86, 87 ; 13. 1911 ; 19. 1071 ; 20. 213 ; 22. 1661.

자체의 해석자이며, 모든 것을 증언하고, 판단하고, 조명하기 때문이다.”²⁴⁾ 게다가 “성경이 진리의 제일 원리(sacras literas seu prima principia veritatis)”라고 믿는 루터의 철저한 신앙은 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²⁵⁾ 이 원리를 가지고서 루터는 교황과 교회와 공의회 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과 경험도 교리의 원천과 규범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²⁶⁾ 비록 그가 증생한 이성의 봉사적 사용은 인정하지만, 그는 결코 인간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도록 하지는 않는다.²⁷⁾ 또한 경건하게 성경에 접근할지라도 루터는 결코 성경적 신뢰가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존하도록 하지는 않는다.²⁸⁾

루터는 여러 문맥에서 “성경”(Die Heilige Schrift 혹은 Sacra Scriptura)과 “하나님의 말

씀”(Gottes Wort 혹은 Verbum Dei)이란 말을 서로 교체해서 사용한다.²⁹⁾ 그래서 루터가 명백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루터를 성경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모종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주의적 개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간의 말(성경 속에 있는)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바르트주의 이전의 바르트주의적 개념을 진척시켰다고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³⁰⁾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우기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그 말씀들이 영감되었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고 (말하자면) 찍히고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24) WA, 7. 97; W.G.Kümmel, 「The New Testament: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of Its Problems」, (New York: Abingdon Press, 1972). p.22를 보라.

25) WA, 6. 506; cf. WA, 5. 643, 645.

26) WA, 6. 505~6; p.561; 17. I. 99.

27) 루터는 이성을 “악마의 신부”라고까지 묘사했다.

Martin Luther, 「Luther's works」, (eds. Jaroslav Pelikan, Robert Fischer et al; Philadelphia: Fortress, St. Louis: Concordia, 1955~), 51. 374(다음인용부터는 LW로 표기함), 그리고 “귀여운 창녀” 혹은 “악마의 기생”이라고 했다. (LW, 40. 174; WA, 51~126) 사람들은 루터가 Worms 국회에서 (1521, 4.18) 다음과 같이 인간의 이성을 교리의 원천으로서의 성경과 균등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내가 성경의 증언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WA, 7. 8328) 그러나, 루터는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충성된 이성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할 뿐이지 어떤 자율적인 의미에서 이성을 언급하지 않았다.(cf. WA, 51. 123, 192)

Robert D. Preus, “Luther and Biblical Infallibility.” p.127을 보라.

28) LW, 34. 285~87; 루터가 믿음에 의한 칭의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성경권위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Rupert Davis, 「The Problem of Authority in the Continental Reformers: A Study in Luther, Zwingli and Calvin」, (London: The Epworth Press, 1946), pp. 37,39: 그러나, 루터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나 경험은 항상 성경에 굴복해야 한다고 한다. 달리 말해서 성경적 신뢰는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담고 다만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듣고 부지런히 주시해야 한다.”(WA, 23. 699; cf. WA, 4. 517); “루터는 주관적인 내적 세계에 연루된 것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구원의 멧세지로 돌아갔기에 단지 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Stephanus Pfürtner, O.P., 「Luther and Aquinas: A Conversation」, trans. E.Quinn;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4, p.107).

29) WL, 8. 26, 1111, 1316; 3. 717, 1536; 4. 1697, etc. N. Bodamer는 루터의 작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인용문을 관찰했다. W. Bodamer, “Luther's Stelling zur Lehre von der Verbalinspiration”, 「Theologische Quartalschrift」, 34(1936), pp. 240 ff.

30) Robert D. Preus, “The View of the Bible Held by the Church: The Early Church through Luther”, 「Inerrancy」, p.377.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듯이 말이다.”³¹⁾ 루터에게는 메시지의 영감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인 언어의 영감사이에 차이가 없다. 루터가 주장하는 바로는 선지자들의 입에 “성령께서 어휘를 주셨다.”³²⁾ 그리고 “손에 있는 펜으로” 글자를 쓰셨고 “마음에 문자를 찍으셨다.”³³⁾고 함으로써 성령께서 단어와 문자까지도 책임지셨다고 한다. 성경의 영감은 단어(어휘)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말씨)에 까지도 미친다. 즉 “어휘 뿐만 아니라 표현법까지도 성령께서 사용하셨으니 성경은 신적인 것이다.”³⁴⁾ 그러나 루터는 성경에 대하여 인간 저자의 협력을 간과한 “기계적 영감”이나 “필기이론”을 주장하지 않았다.³⁵⁾ 사실 루터 자신은 축자영감이라는 어떤 교조적인 관념에 얽매이기를 거절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른바 축자영감을 믿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는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성경의 단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³⁷⁾

이제 우리는 루터가 성경 권위를 입증한 두번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는 성경의 초점을 그리스도라고 거듭 선언하고, 이 사실에서 그는 성경의 권위를 이끌어내는 것 같다.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은 루터의 성경 주석의 가장 특이한 통찰이다.³⁸⁾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졌다. 그 분이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은 그 의미를 지닌다.³⁹⁾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끌어내라.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달리 무엇을 발견하겠는가?” 라고 했다.⁴⁰⁾ 이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의 성경주석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경권위관에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 루터에 의하면 성경의 신적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인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⁴¹⁾ 확실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그 권위를 바로 부여하실 수 있다. Da-

31) W2, 9. 1770.

32) WA, 3. 172.

33) LW, 22. 473; WA, 3. 256.

34) WA, 40.III.254(W2, 4. 1960); LW, 22. 119.

35) Michael J. Reu, 「Luther and the Scriptures」, pp.109, 114를 보라. Reu는 루터가 “기계적 영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36) Cf.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1966). p.50; Eugene Klug, From Luther to Chemnitz」, (Amsterdam: J.H. Kok N.V. Kampen, 1971). pp. 17~38.

37) Robert D. Preus, “Luther and Biblical Infallibility” p.121; cf. E.T. Pedersen, 「Luther som Skrifortolker, en Studie i Luthers Skriftsyn hermeneutik og eksegesi」, (Kjbenhavn: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1959), p.202.

38) Willem J. Kooiman, 「Luther and the Bible」, pp. 207~208을 보라.

39) 루터의 작품에서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에 관한 진술들이 증가될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빼놓고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WA, 4. 153, cf. 3. 597); “성경의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WA, 14. 97. 2); “만일 그 분이 알려지면 다른 모든 것은 분명하고 명료해 진다.”

(LW, 7. 285);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거기에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향한 장족의 진보가 있다.”(WA, 56. 4).

40) WA, 18. 606. 29; cf. M. Luther, 「The Bondage of the Will」, (ed. H. Cole; London, 1930), p.26.

41) Robert D. Preus, “Luther and Biblical Infallibility”, p.123.

vid Lotz는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올바르게 강조했다.

대조를 하자면 루터가 교회전통이나 교황과 공의회와 교훈적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유일한 규범적 권위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는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 견해는 무엇이 결정적인가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만을 주장함으로써 루터는 사실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전체요 근거다.⁴²⁾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 때문에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긴 것 같다. 물론 그의 성경해석 원리에서 루터가 성경내용의 다른 부분과 대조하여 성경의 중심 메시지만 그리스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둔 것도 사실이다.⁴³⁾ 사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부였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형식과 대조해서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더우기 루터는 결코 성경의 기독교적 내용만이 권위가 있고 무오하다고 생각지 않았다.⁴⁴⁾ 이는

루터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⁴⁵⁾ 루터가 성경전체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만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적 내용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⁴⁶⁾ 마치 그리스도가 성경 어디서나 나타나듯이 성경 전체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지닌다. 루터가 그의 구약서문에서 성경을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강보와 구유⁴⁷⁾”라고 말한 그의 유명한 은유는 성경의 권위가 그 말 자체(단순한 구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아기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평가들이 자주 사용해왔다. 그러나 루터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는다는 피상적인 결론에 경고를 주려고 이 은유를 사용했다. 달리 말해서 그는 단지 구약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자신의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주석의 원리를 강조했을 뿐이다. 비록 구약이 강보와 같이 범상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소중한 내용과 하찮은 형식을 구별하려는 어떤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문맥에서 루터는 구약에 나타난 “언어와 이야기의 단순성”을 언급할 때, 오히려 성경의 그 언어들을 격찬하고 있다. 즉 “그것들이 비록

42) David K. Lotz, "Sola Scriptura: Luther on Biblical Authority," *Interpretation*, 34/3, July, 1981.

43) Cf. WA, 44.510,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내용으로 받는다. 그분을 아는 것을 배웠다면 나머지는 그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되고 모든 성경이 명료해진다."

44) 많은 학자들이 성경권위에 대한 루터의 원칙을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

Cf. Jack B. Rogers & Donald K. McKim, *op cit*, p.87.25; Philip S. Watson, "Let God be God! : An Interpretation of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London: Epworth Press, 1947), p.175; Julius K. & do. stin, "The Theology of Luth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errancy," Vol. II, pp.252~57. Kent S. Knuts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40(1969); Edmund Schlink, "Theology of the Lutheran Confessions," (trans. P.F. Koehnke & H.J.A. Bouman;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61). p.29.

45) WA, 2. 73(cf. LW, 35. 396).

46) John W. Montgomery, "Lessons from Luther on the Inerrancy of Holy Writ," *God's Inerrant Word*, p.67; cf. M. Luther, "Vorlesung uber den Romerbrief, 1515~1516," (4th ed. Johannes Ficker; Leipzig, 1930), p.240.

47) LW, 35. 236.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⁴⁸⁾

A. S. Wood도 루터가 성경에 대한 그의 기독교적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형식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듯이, 하나님의 같은 신성과 능력이 문자로 만들어진 그리고 종이와 인쇄 잉크로 구성된 성경에 담겨있다.⁴⁹⁾

여러 문맥에서 루터는 자신에게 성경의 어휘와 문장이나 본문이 권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⁵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형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메시지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도 권위가 있다.⁵¹⁾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형식과 그 기독교적 내용이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⁵²⁾ 루터는 결코 성경에서 형식과 내용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구나 루터의 성경권위관은 성경의 정확무오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미 앞에서부터 루터의 성경권위의 개념이 성경의 어떤 과오나 모순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신적기원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의 권위는 루터에게 있어서 정확무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성경은 복음인 그리스도를 위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루터가 직접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강연한 그의 몇몇 진술을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은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W2, 15. 1481; cf. LW, 32.11; W2, 19.1073).

성경이 자체 모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단지 몰상식하고 완고한 위선자들에게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뿐이다 (W2, 9.356; cf. WA, 40.I.420; W2, 20.798).

단 한마디의 말씀에 대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사기와 기만이라고 감히 비난하며 그리고 한번 혹은 두번씩 경고를 받고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고의로 계속 그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분명히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사기와 기만이라고 마관가지로

48) Ibid.

49) A. Skevington Wood, 「Captive to the word : Martin Luther : Doctor of Sacred Scripture」; p.175; cf. WA. 3. 515.

50) WA, 40II. 52(cf. LW, 27. 41; W2, 9. 650): “한 글자, 아니 성경의 하나의 제목까지도 우리에게 천하보다 많은 의미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사소한 변화조차도 허용할 수 없다.”; LW, 37. 308(WA, 26. 49) “만일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그 말을 가련하고 불쌍한 말이라고 하지않고 단 하나의 제목과 글자가 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존중되며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그 말씀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경멸하는 자는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W2, 19. 20: “바울의 말 속에 전 교회가 따르지 않고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글도 있을 수 없다.” WA, 40III. 254: “어휘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성령에 의해 사용되었고 성경은 신적인 것이다. cf. W2, 14. 435.

51) Robert D. Preus, “The View of the Bible Held by the Church : The Early Church through Luther”, 「Inerrancy」, p.376.

52) Cf. H. Huth, 「Gospel and Scripture」: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Material and Formal Principles in Lutheran Theology (St.Louis : Concordia. 1972).

감히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믿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믿어진다는 말은 절대로 그리고 예외없이 사실이다. 성령은 한 교리는 옳은 것으로 그리고 다른 교리는 거짓된 것으로 믿어지게 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자신을 분리되거나 분열되어진 채로 두심으로써 스스로 괴로와 하지는 않으신다(WA, 54.158; cf. LW, 27.258).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더불어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속일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없는 완전하게 분명한, 명백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고수해야 한다(LW, 47.308; 20.789).

그래서 루터는 분명히 성경전체(전체와 부분, 형식과 내용에서)가 완전히 정확무오하다는 신념을 고수했다.⁵³⁾ 그리고 루터가 성경무오에 대한 제한된 견해를 옹호한 암시는 없다. 즉 성경의 구원론적 내용(믿음과 실천의 문제)

은 전적으로 오류가 없으나 성경의 현상(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사실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 현대 비평가들이 루터에게 이런 제한된 무오성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의 저술들을 임의로 곡해했기 때문이다.

2. 칼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⁵⁴⁾에서 로마 카톨릭과 “광신자들”(the Libertines)에 반대해서 논쟁적으로 그의 성경권위관을 발전시켜 독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썼다. 칼빈은 성경권위가 교회(로마교 전통)나 이성적인 논증(indicia)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장했다.⁵⁵⁾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신적인 저작 즉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달려있다.⁵⁶⁾ 그래서 칼빈이 확신하기로는 “성경이 신자들과 더불어 지녀야 하는 완전한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직접 하늘에

53) 성경 무오성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원문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해진 본문의 오류와 관계가 없다(cf. J.M. Reu, 「Luther and Scripture」, pp. 103~108). 비록 루터가 해결 할 수 없는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봉착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그 문제를 “과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부인하던 것을 성경의 뜻으로 돌림으로써 해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문제들을 사본가들의 과오나 빈약한 주석으로 전가시키기 까지 했다.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W2, 4.600; 14.491; 7.1781; preus, 「Luther and Biblical Infallibility」, pp.136~137).

54) John Calvi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20(ed. J.T. McNeill, trans. F.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I.vii~ix; Liv; Lviii; 이후에 나오는 기독교 강요의 인용은 주로 Battles의 영어번역판을 사용하겠지만, 이따금 H. Beveridge 역도 인용할 것이다.

55) 「Inst.」. I. x. 1 (note 1)를 보라.

Cf.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Eerdmans, 1981), pp.10, 98f. 330. R.W. Collins, 「Calvin and the Libertines of Geneva」, (Toronto: Clarke, Irwin & Company Limited, 1968).

56) 「Inst.」, I.vii - 1~3 “그러나 성부께서 자신의 위엄을 성경에 나타내시며 성경의 존귀성을 논쟁의 영역에서 지키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견고한 신앙을 마련하기에는 이성적 증거(indicia)는 충분치 못하다. ... 실로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 그 주요하고 우선적인 증거에 대하여 이차적인 보조역할만 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려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I. viii. 13).

57) Ibid., I. vii. 5: “Abipsissimo Dei ore ed nos fluxisse”; cf. 「Inst.」, I. vi.1: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술을 여신다.”

서 온 것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⁵⁸⁾ 같은 맥락에서 또 칼빈이 말하길 “교리의 신뢰성은 우리가 의심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리의 저자이시라고 확신할 때 비로소 확립된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온다.”⁵⁹⁾고 한다. 디모데후서 3장16절에 관한 설교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고 말한다.⁶⁰⁾ 그리고 같은 본문의 주석에서는 성경기자들의 말을 주님의 입에서 나온 신적인 교훈(doctrina)으로 간주한다.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선언한다 (divinitus inspiratam). 이는 만일 성경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그 성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기 때문이다. …… 그때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 자하는 자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점을 확정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하라. 즉, 율법과 예언은 인간의 뜻으로 전해진 교훈(doctrinam)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쓰여진 (dictatam) 것이다 ……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자기들 손에서 받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적인 충동에 의해 말했으므로 말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이었다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증거했다 (os Dei loquutum esse). ……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포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성경에 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왔기 때문이다.⁶¹⁾

그래서 칼빈은 도덕률(십계명)을 강해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라고 시작할 수 있었다.⁶²⁾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ex suo sensu), 인간적인 충동으로(humano impulsu), 자의로(sponte sua), 그리고 자신의 임의로(arbitrio suo) 말하지 않고 다만 하늘의 지시(quae coelitus mandata fuerant)로 말했다.”⁶³⁾ 달리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말했지 자신의 두뇌로 꾸며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써 성령께서 명하신 것을 자신의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진실하게 전달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제1의 저자가 아니라 “한 분뿐인 유일한 저자”이다.⁶⁴⁾ 그래서 인간 저자의 다양성은 성경의 유일하고 책임있는

58) Ibid., I. vii. 1.

59) Ibid., I. vii. 4.

60) John Calvin, 『Mystery of Godliness and Other Sermons』, (Grand Rapids : Eerdmans, 1950). p.129.

61) 『Comm』, on II. Tim 3 : 16, as quoted from J.I.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Inerrancy and the Church』, p.161 ; cf.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J.Owe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5, p.83 :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알려지고 또 그들의 입을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입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Comm』 on I Peter 1 : 25).

62) 『Inst.』, II. viii. 12.

63)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61, Warfield는 이 말을 J. Cramer의 글(『Nieuwe Bijdragen ophet gebied van Godgeleerdheid en wijsbegeerte』, III, 1881, pp.102~3)에서 인용했는데 그는 칼빈의 답후 3 : 16, 벨후 1 : 20에 대한 주석을 차례로 인용했다.

64) L.F. Schulze, “Calvin en die Skrifgesag”, 『In die Skriflig』, 14/56, (Dec, 1980), p.33 : “그래서, 칼빈은 교부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분은 “제일의 저자”가 아니라 유일한 저자이시라는 말이다.

권위인 성령의 통일성 앞에서 사라진다.⁶⁵⁾ 더우기 칼빈은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한, 진짜 필경사”(Certi et authentici Spiritus Sancti amanuenses)⁶⁶⁾, 혹은 단지 “필자”(penmen)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 쓴 것만 말했다고 한다. 칼빈은 성경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서 완전히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⁶⁸⁾ 그는 자주 성령의 지시에 근거를 두면서 “율법과 예언은 …… 성령에 의해 받아 쓰여진(dictatam) 것이다”고 했다.⁶⁹⁾ 그런데 그가 “Spiritu Sancto dictante”를 언급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칼빈이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한다고 비난했다.⁷⁰⁾ 그러나 베드로후서 1

장 20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칼빈은 분명히 성경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비인격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대로 말했다. ……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 감히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되었다고 말한다.⁷¹⁾

반대로 성경기자들은 주제를 다루고, 일을 계획하고, 사실들을 선택하고, 자료의 순서를 지적하고, 어휘나 문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65)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61, Warfield는 이것을 J.Pannier의 글에서 인용했다 (「Le Temoignage du Saint-Esprit : Essai Sur L'histoire du dogme dans la theologie reformede」, Paris, 1898, pp. 197~207).

66) Inst., IV, vii, 9.

67)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 J. Anderso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6~1859), III, 205 ; cf.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성경기자들을 “봉사자”(I.vii.5), “기관이나 도구”(「Comm.」, on philippians, p.87 ; Minor Prophets. III.197) 그리고 “서기”(「Comm」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ed. William Pringle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5~46, I.127)라고 한다.

Kenneth S. Kantzer, “Calvin and Holy Scriptures”,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F. Walrood ; Grand Rapids : Eerdmans, 1957), p.138을 보라.

68) 「Inst.」, I.vii. 5 :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인간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나왔다.”

J.I. Packer, “Calvin's View of Scripture”, 「God's Inerrant Word」, (ed. J.W. Montgomery ;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p, INC, 1974), pp. 103~104 ; Kenneth S. Kantzer, 「op. cit.」, p.139 ;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p.60을 보라.

69) 「Comm.」 on II Tim 3 : 16 (J.I.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161 에서 인용) ; cf. 「Inst.」, IV viii. 6 : “그분은 예언에도 기록되어 그분 말씀의 부분이 되도록 위탁하셨다. 동시에 여기에 이야기가 첨가되고 선지자의 노력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성령의 지시하에 작성되었다.”

Calvin의 작품에 “Spiritu Sancto dictante”가 많이 언론이 되어 있다. Kenneth S. Kantzer, 「op. cit.」, p. 138. H.J. Forstman, 「Word and Spirit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pp. 53, 58을 보라.

70) R.E. Davies, 「The Problem of Authority in the Continental Reformers」, p. 114.

Reinhold Seeberg,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bond IV, 2 Haelfte (Leipzig : A. Deicherstsch Verlagsbuchhandlung werner Scholl, 1920), pp. 569. 613. Otto Rit schi,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vol. 1(Göttlngen : Vandenhoeck und Ruprecht. 1908), p.59.

71) 「Comm.」, 「II Peter 1 : 20 John Calvin, Commentaries in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23. trans J. Haroutnman ;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9, p.89.

그들의 생각과 인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했다.⁷²⁾ 그런데 칼빈이 “dictante”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 Warfield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다.

이 말은(dictante) 비유적이다. …… 칼빈이 의도하는 바는 영감의 방식이 받아쓰기였다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가 그것이 필기에 의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인간적인 혼합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작이라는 것이다. “받아쓰기”란 말은 분명히 그 당시에 영감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표현하는데 통용된 말이다.⁷³⁾

Warfield가 주장하는 대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한다”와 “성령이 말한다”는 표현은 실제로 구별할 수 없다.⁷⁴⁾ 여러 문맥에서 그는 반박할 수 없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⁷⁵⁾와 사도들⁷⁶⁾의 말과 동일시켰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⁷⁷⁾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사이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른바 성경 속의 “내적 정경”(inner canon)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성경을 골라 집어서는 안되고 예외없이 전부를 받아야 한다.”⁷⁸⁾고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칼빈이 비록 직접 우리에게 조직적인 영감이론을 주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독자영감의 견해를 확고히 지지한 사실은 아주 명백해진다.⁸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

72) K.S. Kantzer, 「op. cit.」, p.141.

73)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p.63~64 칼빈은 전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궁극적인 저작물로서 각 말씀이 즉시 받아 쓴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의 것은 성경에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다만 시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4)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62.

cf. T.H.L. Pa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Grand Rapids : Eerdmans, 1959), p.42.
75) 신명기에 관한 설교에서 칼빈은 말하길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하자. 즉, 모세가 결코 율법이나 시련의 저자가 아니라 그는 단지 받은 것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나 비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의 두뇌로 꾸며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기록했다고만 선언한다.” (J.K.S. Re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 A Study of the Reformation and Post-Reformation Understanding of the Bible」,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n.d. p.34에서 인용).

7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s」, (trans. J. Owe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0~1855) II, p. 270. IV. p. 334 ; 「Commentaries on the Twelſe Minor Prophets」, (trans. J. Owe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6~1858), IV, p. 341 :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77) 「Inst.」. IV. iii. 9. “그러므로 사도들의 글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pro Dei oraculis habenda sunt).

78) Rupert E. Davies, 「op.cit.」, p.107.

79) Sermon on II Tim. 3 : 16~17. R.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p.105에서 인용.

80) 많은 학자들이 칼빈이 독자영감의 견해를 주장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B.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p. 60 ff. J.I. Packer, “John Calvin and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p. 156 ff. K.S. Kantzer, 「op.cit.」, pp. 137 ff. J.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pp. 11ff. D.J. De Groot, 「Calvin's opvating over de Inspiratie der H. Schrift」, pp. 114 ff. A.M.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Leipzig : J.C. Hinrichsche Buchhandlung, 1920). p.52. R. Seeberg, 「Lehrbuch der Dogmangeschichte」, (Erlangen : A. Deicherische Verlays buchhnnndlung Werner School, 1920). vol. IV. pt. 2. pp. 566 ff. Karl Barth,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art 2. p.520.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trans. Olive Wyon ; Philadelphia : Westminster, 1959), p.111 자료를 더 원한다면 Rogers Nicole, “John Calvin and Inerrancy.” 「JETS」, 25/4 (Dec, 1982), p.427을 보라.

숨인 성경의 책임있는 저자이시라는 칼빈의 명백한 견해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칼빈은 성경의 모든 말씀마다 참되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었다.

더군다나 칼빈이 자신의 영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성경을 정확무오하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⁸¹⁾ 인간적인 것이 성경에 섞이지 않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칼빈은 성경이 모든 인간적인 과오에서 벗어나 있다고 확고하게 주장 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경은 “확실하고

정확무오한 기록”⁸²⁾이요, “확실하고 틀리지 않는 규칙”⁸³⁾이며, “그의 거룩한 진리의 정확 무오한 규칙”⁸⁴⁾ 이라고 말했다. 본문이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거나 부정확해 보일 때에 칼빈은 그것은 무지한 사본가가 저지른 본문 전달의 과오라고 했다.⁸⁵⁾ 그는 가끔 사실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키는 놀랄 정도로 희한한 것에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결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침으로써 영감된 저자의 오류를 인정 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턱없이 주장하지 않는

81) Cf. J.I.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183.

J.I.Packer는 칼빈이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류의 무오론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1) 성경은 경험적인 학문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이 되는 개념, 자연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과학을 가르친다. 2) 성경의 예언은 그림같은 암호로 미래의 세계 역사를 열거한다. 3)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본질과 초월성의 신비를 배격한다. 4) 성경의 책들은 전혀 인간적인 합성물로 보아서는 안된다. 5) 이치에 합당한 것이 조화로운 전체를 내세울 때 그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칼빈을 연구한 일부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들은 성경의 정확무오성을 믿지 않지만 칼빈은 믿었다고 한다. Brian A. Gerrish, “Biblical Authority and the Continental Reformation”, 『SJT』, vol. 10. (1957), pp. 354~355.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pp. 104~105. H.Jackson Forstman, 『Word and Spirit :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p. 65.

82) John Calvin, 『Sermons of Master John Calvin, upon the Book of Job』, (trans. A. Golding ; London : Lucas Harrison and Geoge Byshop, 1574), p.744.

83)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 J. Anderso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6~1859). vol 1.

84)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 (trans. J. Owen ; Edinburgh :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p. xxi.

85)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 Acts』, (ed. D.W. Torrance and T.F. Torrance ; Grand Rapids : Eerdmans, 1964), vol 6, pp. 181~182, 행 7 : 14에 관한 칼빈의 주석에서 그는 말하길 “그러므로 나는 이 모순된 것이 사본가 쪽의 과오로 생겼다고 단정한다”고 한다. 칼빈이 성경에서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몇몇 특별한 본문(행 7 : 6, 마 27 : 9, 히 11 : 21)에 대한 그의 견해를 상세하게 토의한 것을 원한다면 John Murray, 『op.cit.』, pp.28~30을 보라.

물론 우리가 칼빈이 일부 문제성이 있는 본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항상 모든 점에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칼빈도 그의 영감교리에 아주 일치하지는 못할 때도 있다. 다만 이것은 성경의 신적권위와 영감에 관한 칼빈의 강조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독립된 조항에 불과하다.

cf.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p.31 : (행 7 : 14, 히 11 : 21)

“우리는 이 문장에서 칼빈이 사용한 말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특성을 고려할 때 그가 늘 경고하는 것과는 다르고 잘못 말한 것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불가침적인 성격을 존중하면서...칼빈의 교훈의 전체 결과로부터 그런 것들을 왜곡시켜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절망적인 수단일 것이다.”

J.I. Packer, “Calvin's View of Scripture”, pp.105~107. J.I.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p. 157~158, 178~184

W.R. Godfrey, “Biblical Authorit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A Question of Transition”, 『Scripture and Truth』, (eds. D.A. Carson & J.D. Woodbrige ;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3). pp. 230~234. John D.Woodbridge, 『Biblical Authority』 pp. 57~63.

다.⁸⁶⁾ 이러한 칼빈의 태도는 주어진 원본은 성령의 신적인 작품이요 즉 원본은 어떤 인간적인 오류에서 벗어난 정확무오한 진리라는 확신에 근거해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어디에서도 성경기자들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같은 잘못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⁸⁷⁾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결코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교회의 필요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성경은 본래부터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실로 성경은 자증적(autopiston)이다”라고 선언한다.⁸⁸⁾ 성경의 ‘자증’에 의해서 칼빈은 성경이 본래 그 신적인 기원, 특성, 권위,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⁸⁹⁾ 칼빈은 “회고 검은 물체가 그 색깔을 보여주듯이, 달고 쓴 것이 그 맛을 내듯이 성경은 그 자체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완전히 보여준다”⁹⁰⁾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만일 성경이 그 자체가 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그 증거가 우리 모두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가? 칼빈의 대답은 우리가 본래 죄 때문에 귀머거리와 소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같은데 그것이 모두에게 비취지만 소경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본래 소경이다. 내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렇다.”⁹¹⁾ 비록 성경이 본래 스스로 자증한다고 할찌라도 우리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 납득이 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개인적으로 그 권위를 확신할 수 있다.⁹²⁾ 성경의 자증이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 형식에 있어서 개혁자들은 신학적 확신의 근거에 대한 중세기의 두가지 방안을 종합하려고 애썼다. 즉 그것은 자명적인 확신(실재론적 견해; 최고의 진리는 자증이요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과 권위적인 확신(유명론적 견해; 최고의 진리는 권위에 의해서 확인되고 역사적으로 이해

86) J.I.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p. 178~179; John Calvin, 「Comm.」, on Rom. 5: 15 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trans. David and Thomas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 p. 114.

87) Dunlop Moore, “Calvin’s Doctrine of Holy Scriptur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vol. iv, 1893, p.55: “칼빈이 성경에 정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암암리에 그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도록 요청하는 셈이 될 것이다.

88) 「Inst.」, I. vii. 5.

89) John Murray, 「op.cit.」, p.50.

90) 「Inst.」, I. vii. 2.

91) John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Geneva, 1541), vol. II. (ed. J. Pannier; Paris: Societe les belles lettres, 1936). p.32. P.T. Fuhrmann, “Calvin, The Expositor of Scripture”, 「Interpretation」, IV. (1952), p. 194에서 인용: 「Inst.」, II. ii. 21: “성령이 자신의 빛을 던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둡다.”; 「Comm.」 on Jer. 24: 7: “그래서 우리가 아는(celligimus) 바로는 사람이 본래 소경이며 또한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소경되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조명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결코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Deus illuminat spiritu suo)” H.J. Forstman, 「op.cit.」, p.76에서 인용.

92) 「Inst.」, I. vii. 5.

되어야 하는 성경의 불확실한 내용속에 있다)이다.⁹³⁾ 달리 말해서 그들에 의하면 성경은 자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불확실하다.⁹⁴⁾ 그러니까 성경은 “자명한 불확실한 확실성”을 지닌다는 것이다.⁹⁵⁾ 그래서 이미 본래 그 속에 있는 성경의 자명한 힘(타당성)은 결국 다른 이의 증거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칼빈은 성경의 증거는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적 판단을 초월한다고 본다.⁹⁶⁾ 성경을 “구술하신” 그러한 성경만이 우리가 성경의 신성함을 인식하도록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속에 있는 자신의 적절한 증인이 되듯이 그 말씀도 성경의 내적 증거에 의해 인침을 받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에 수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신실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Inst., I. vii. 4)

성령의 이러한 사역에 비추어서 칼빈에게 있어 성경의 권위가 성경 자체(per se)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부여되었다고 투명스럽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⁹⁷⁾ 달리 말해서 그들은 성령의 증거가 우리가 성경의 자증적 권위를 믿게 되는 근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성령의 내적 증거는 주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이라는 공식적인 사실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내용(주제문제)과 관련된다. 오직 성령만이 죄인에게 상실한 능력을 회복시켜 성경의 신적인 실체를 식별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모든 말씀의 약속으로써 인치신다. L. F. Schulze는 성령의 증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의 ‘기원’이나 ‘수단’이 되는 명백한 성경 자체이다. 이 성령은 단지 자기의 형상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⁹⁸⁾

칼빈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친다는 것에 대해 말할 때,⁹⁹⁾ 그 인침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지 본래 이전부터 진리인 것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는

93) L.F. schulze, "Calvyn en die Skrifgesag," "In die Skriflig," p.35.

94) Cf. "Inst.", I. vii. 5. (trans 5. H. Beveridge, 1957. Beveridge는 프랑스판에서 노트에 한 절을 덧붙였다.) "성경의 장엄함을 볼 때 성경이 충분히 존경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와 닿기 시작한다."

95) L.F. Schulze, "Ibid."

96) 여기서 칼빈의 논쟁점은 성경의 신성함에 대한 확신은 인간이성 뿐 아니라 교회에도 의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cf. "Inst.", I. vii. 1; I. vii. 4.

97)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p.109. R. Seeberg,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pp.395 ff를 보라. 그러나 칼빈의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개념은 특별한 종류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새로운 계시의 또 다른 원천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우리를 인정된 복음의 교리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새롭고 전례없는 계시를 고안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꾸며내는 임무를 지니지 않았다. 다만 복음에서 지시한 그 교리로서 우리 마음에 인치는 사명을 갖고 있다."

98) L.F. Schulze, "Calvin en die Skrifgesag", "In die Skriflig," p.36.

99) "Inst.", I. vii. 5: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마음에 인치게 될 때만 우리에게 증대한 영향을 끼친다."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에게 내적 증거 자체보다 앞서 있었던 성경의 신적인 실체를 확인시켜 준다.¹⁰⁰⁾ 칼빈이 미심쩍은 성경책들의 정경성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는 주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정경책들의 신적 특징들에 호소했다.¹⁰¹⁾ 그러나 그 신적인 특징들은 선행하는 자증적인 사실이지 내적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말한대로 우리는 다시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것은 신적인 영감과 저작성이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침의 결속(inviolabili nexu)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¹⁰²⁾ 그러나 칼빈이 호소하는 마지막 법정은 항상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능은 자기 계시의 매체로서의 성경에 늘 앞매이다.¹⁰³⁾ 이러한 성경에 대한 복종은 “성령에 대한 모욕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이 이미 성경에 주입한 신적 가르침에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¹⁰⁴⁾

이제 우리는 성경권위의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권위가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적인 교훈(doctrina)에 의존한다.¹⁰⁵⁾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속에 계시하셨고 지금 성경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¹⁰⁶⁾

하늘의 “교훈”(doctrina)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요 여지껏 주어졌던 모든 계시의 중보자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아들과 그 아들이 그를 계시하려고 선택한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마 11:27)…… 그러므로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치 거울로 보듯이 그의 아들 안에서 바라봄으로써 알았다(cf. 고후 3:18). 내가 이것을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지혜요, 빛이요, 진리이신 그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셈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진 하늘의 교훈의 모든 것을 마셨다. 이같은 셈에서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한 모든 하늘의 신탁을 길어내었다 (Inst., IV. viii. 5).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그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늘 아버지께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속

100) John Murry, 「op. cit.」, p.51.

101) John Calvin, 「Commentaries of the Catholic Epistles」, (trans. J. Owen;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5), p. 264. K.S. Kamtzer, 「op.cit.」, pp.150~151을 보라.

102) 「Inst.」, I. ix. 1.

103) B.A. Gerrish, 「op.cit.」, p.359.

104) L. Floor, 「The Hermeneutics of Calvin」, 「Calvinus Reformer: His Contribution to Theology, Church and Society」 (Potchefstroom: PU for CHE, 1982), p.184.

105) J.I. Packer, 「Calvin's View of Scripture」, p.111.

106) 여기서 “중심메시지”란 개념에 대해서는 「Inst.」, Lvi. 2를 보라.
교훈(doctrina)의 개념에 대해서는 「Inst.」, Lvi. 2를 보라.
여기서 “중심메시지”란 개념은 현대 dimensionalism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경의 형식을 떠나서 “메시지”(내용)을 주시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고해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심으로 선포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비천 이후, 전에는 희미한 빛만 있었는데, 우리가 한낮의 여느 때의 찬란함같이 신적인 진리의 완전한 광채를 지니고 있다(Inst., IV. viii. 7).

더구나 원래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신적인 "교훈"(doctrina)이 이제는 성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이라는 그 특성 속에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실체가 된다.¹⁰⁷⁾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 속에 간직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보고(寶庫) 말이다. 만일 율법과 선지자를 철저히 조사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로 데려갈 수 없는 단 한 마디의 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¹⁰⁸⁾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 목적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우리의 연구를 위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 할찌라도, 우리는 결코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¹⁰⁹⁾

사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 성경의 지향 목표(scopus)이며 총체(summa)이다. 여러 문맥에서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죽은 문자 문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한다.

그러므로 그 문자는 죽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잘려나가고 마음에 단지 껌전만을 올리는 여호와의 율법은 그 독자들을 살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마음에 정말 와닿는다면, 그 문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미친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Inst., I. ix. 3).

다시 같은 맥락에서 칼빈이 말하길,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될 리가 없다(Inst., II. vi. 4).

확실히 칼빈이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우리속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¹¹⁰⁾

107) J.L. Packer, "John Calvin and the Inerrancy of Holy scripture," p.162.

108) John Calvin, "Introductory Selections", 「Calvin: Commentaries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3 (trans. J.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p.70.

109) 「Comm.」 on John 5: 39,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p27에서 인용.

110) Ibid.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진술로부터 어떤 학자들은 성경권위에 대한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나 기능적인 성경권 위관과 관련된 자기들의 신학적 확신을 지지하기 위한 기반을 찾으려고 갈망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과 대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Wilhelm Niesel은 칼빈이 성경과 성육한 말씀인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차이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들렸다고 주장했다.

칼빈이 어쩌다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해 말할지라도, 그런 말은 결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정말 그래서 안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 문자적 영감에 대한 교훈은 성경 숭배를 낳게 되고 신적인 말씀의 유일한 성육이 있으면 성경은 그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간과한다.¹¹¹⁾

그러나 칼빈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성육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사이에 조금도 상반됨이 없다.¹¹²⁾ 왜냐하면 “성령과 더불어” 사도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지시

하신 모든 것”¹¹³⁾을 기록했으므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⁴⁾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술이나 하늘에서 바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는가? 칼빈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있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없으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영원한 기억속에 위임하시기를 기뻐하신 유일한 기록이다(Inst., I. vii. 1).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오늘날 계시의 유일한 양식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의 양식이다. 더우기 칼빈에게는 성경이 단순한 기록문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며, “거기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해 ……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술을 여신다.”¹¹⁵⁾ 달리 말해서 성경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그 거룩한 입을 여시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c si vivae ipsae Dei voces).¹¹⁶⁾ 그러므로 영감된 말씀으로써의 성경은 지금 성육한 말씀과 동일한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유일한 매개체이다.¹¹⁷⁾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육신의 시대에 나타나신 대로 그분과의 조우를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

111) Wilhelm Niesel, 「op.cit.」, p.36.

112) John Murray, 「op.cit.」, p.39.

113) 「Inst.」, IV. viii. 8 ; cf. 「Inst.」, I. ix. 1.

114) 「Ibid.」, IV. viii.

115) 「Inst.」, I. vii. 1.

116) 「Inst.」, I. vii. 1.

117) John Murray, 「op.cit.」, p.42 ;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eds. D.W. & T.F. Torrance, trans. T.H.L. Parker ; Grand Rapids : Eerdmans, 1959). part.1, p.139 :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그 어디서도 적절하게 알려질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Comm. on John 5 : 39).

반드시 정확무오한 계시의 기록된 말씀의 양식을 요청한다.¹¹⁸⁾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성경의 무오성을 신앙적인 내용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에만 국한시키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¹¹⁹⁾ 그러나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기록된 말씀을 비판하기 위한 분류 원리가 아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Scopus Christus)은 “취사선택적 원리가 아니라 계시역사의 원리이다.”¹²⁰⁾ 따라서 칼빈이 성경무오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다른 근거에 의하여 즉 현대 비평가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정한 성경 외적인 전제들에 의하여 부정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 사이에 혹은, 그리스도의 권위(성경의 구원적 기능)와 성경의 권위(성경의 형식)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찾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실 그러한 구별은 현대적 사고 방식에 아주 걸맞을 것이지만, 칼빈에게서 성경에 대한 현대 비평적 사고를 위한 어떤 기초를 찾는 것은 헛된 기 확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칼빈은 17세기의 루터파 신학자들이 성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 기준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권위가 있다(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루터 자신은 정경에서 어떤 책을 삭제한 적이 없다)는 기준은 전혀 알지 못하

였다.¹²¹⁾ 비록 칼빈이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견해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는 계시를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강조하여 그리스도와의 개별적인 만남의 영역에만 중점을 두는 신정통주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 칼빈이 성경의 기독교적 해석을 매우 강조하여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인위적으로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심지어는 “정경속의 정경”을 확증하는 열쇠로 삼고 또 그것을 성격해석의 유일한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이 자기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되게 할 의도를 가지고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현저히 형식적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그 기능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의 기능뿐만 아니라 성경의 형식까지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성취할 수 있다. 칼빈에게는 성경이 이루어진 그 형식과 내용은 함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구성한다. 칼빈은 결코 성경의 실질적인 요소를 형식적인 요소와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118) 「Inst.」, I. vi. 3. 성경기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119) Cf. G.C. Berkouwer, 「A Half Century of Theology」, (trans. L.B. Smedes; Grand Rapids: Eerdmans, 1977), p.138: “성경을 이해하거나 그 권위에 호소할 때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원리를 다루지 않고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증거를 취급한다.”

120) L. Floor, 「op.cit.」, p.189.

121) I.S. Palmer, 「The Authority and Doctrine of Scripture in the Thought of Calvin」,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 XLIX, No.1(Jan-Mar. 1977), p.39.

122) Cf. 「Comm.」 on Psalm 72: 1, H.J.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1977), p.15 인용.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없는 귀절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쓸데없이 세세한 구분을 한다고 주장할 어떤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III.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경의 교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 전 교리체계의 기초로서 이 교리를 다른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두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교리의 교훈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마찬가지로였다.¹²³⁾ 이 고백에 있어서 성경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의존해 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자체이며)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1장 4항).

124)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격적 권위의 근거는 성경이 본래 그것의 신적인 저작과 속성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자증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고백이 성경권위를 인정하려고 첫번째로 의도하는 것이다. 비록 성경이 본래 자체의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고백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 것이다 (1장 5항).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5항은 성경권위의 근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그 권위에 관한 확신을 준다는 것이다. 이 두 항목(4항과 5항)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에 의존한다. 즉 그것은 성령의 내적증거에서 나오는 완전한 신념과 확신이다.”¹²⁵⁾

이 고백에서 말씀과 성령은 침해할 수 없는 결속으로 한데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성경이 성령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듯이 성령께서 성경을 떠나서 신비적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계시)를 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 성령의 기능은 항상 신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이 고백은 “성경의 판단”은 “성령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다.”

123) Cf. B.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p.161.

124) 이 인용과 더불어 다음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인용문은 Philip Schaff, 「The Creeds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es」,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877), pp. 600~673에서 인용한 것임.

125) John Murr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 「The Claims of Trut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p. 318.

(1장 10항)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요즈음 이 분명한 고백의 진술이 오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외적인 말씀에 대한 형식적인 권위에만 관련된다고 하는 견해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 고백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1장 1항). 그밖에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1장 6항)으로 묘사하는 더 많은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알고 믿으며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1장 7항)는 표현도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직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나머지 모든 장들은 제1장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단지 성경권위의 순수한 형식에만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Jack Rogers는 웨스트민스터의 성직자들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써 성경의 구원 내용에 둔다고 한다.¹²⁶⁾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강조하는 바로는 성경은 우선적으로 구원의 내용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 과학, 우주론과 다른 세부적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까지 한다.¹²⁷⁾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제한된 무오성은 인정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과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무오성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Rogers는 성경이 그 현상적 문제에 있어서 틀렸다고 인정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에 대한 단 하나의 예화도 제시하지 않았다.¹²⁸⁾ 이 무오성의 사상을 회피하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성경의 구원 내용(content)과 구원 문맥(context) 사이에 억지로 차이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성경은 내용과 문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¹²⁹⁾

비록 그 고백이 “무오(inerrancy)”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무오성은 그 고백의 의심할 수 없는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이 고백에는 성경무오사상과 관련하여 아주 돋보이는 동등어구가 몇 개 있다. 이 고백을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의 일치”를 인정하고 성경의 “전적인 완전함”과 “정확무오한 진리(the infallible truth)”에 대하여 말한다(1장 5항). 이에 덧붙여서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은 이 신앙고백 제14장 2항에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진리라고 믿는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126) Jack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 Problem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 American Presbyterianism」, (Kampen: J.H. Kok N.V., 1966), p.329. “Van Til and Warfield on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Jerusalem and Athens」,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77), p. 163. 사실상 이 고백은 성경에 있는 완전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는 그것이 전통이라는 부가물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W.R. Godfrey, “Biblical Authorit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 Question of Transition”, 「Scripture and Truth」, p.234.

127) Jack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p.416. Jack Rogers &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206.

128) Jack Rogers, 「Ibid」, pp. 305~6.

129) John H. Gerstner, “The View of the Bible Held by the Church: Calvin and the Westminster Divines”, 「Inerrancy」, p.399. cf. J.D. Woodbridge, 「Biblical Authority」, pp.104~115: 여기서 Woodbridge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그들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성경무오의 사상을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권위가 거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무오성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만일 저자이신 하나님이 진리 자체라면 그분은 사실 “그 말씀속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하고 오류없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도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을 받아들였던 개혁자들의 편에서 있다. 즉 그들은 성경이 전 부분에 걸쳐서 오류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2. 네델란드 신앙고백 (The Belgic Confession of Faith)

네델란드 신앙고백(1561)은 칼빈이 도와서 작성한 프랑스 신앙고백(1559)의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그 진술에 있어서 이전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정교하다. 이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 칼빈주의 교리의 가장 상징적인 진술들중의 하나이다.

네델란드 신앙고백서는 제3항에서 7항까지 성경관을 다루고 있다.¹³⁰⁾ 제3항은 어떤 제한이나 조건없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한다. 특히 이 고백은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기까지 한다(3항). 이 고백이 채택된 때에는 성경무오성이 로마 카톨릭과 개혁자들 양자가 다 승인한 교리였다. 그래서

성경 무오에 대한 옹호가 그 고백속에 두드러지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에 관하여 이 고백은 성경의 무오성과 모든 오류에서 벗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좁은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그것에 대항해서 주장할 수 없다(4항)”.; “아무런 의심없이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믿으므로”(5항); “우리는 진심으로 무엇이든 이 정확 무오한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한다(7항)”.

이 고백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확신하고 납득하는 것이 교회로부터 왔다고 보다는 오히려 특히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한다. 즉 “교회가 성경 자체를 받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5항)”. 만일 그 문맥에서 답을 찾으려고 “성경은 어디서 그 존엄성과 권위를 얻는가”¹³¹⁾라는 제5항의 제목에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5항에 의하면 성경권위의 근거는 어떤 주관적 신령주의적 의미에서 오직 성령의 분리된 증거에서 왔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¹³²⁾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신적인 기원을 향한 우리의 개인적인 확신에 관련된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5항)”.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성령의 증거는 성경의 권위가 의존하는 근거를 취급하지 않고 이

130) 다음에 나오는 네델란드 신앙고백의 모든 인용은 Philip Schaff, 「The Creeds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es」, pp.383~436에서 온 것이다.

131) 그러나 불어원문은 그냥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De Auctoritate Sacrae Scripturae)라고 되어 있다(Philip Schaff, 「op.cit.」, p.386).

132) Jack Rogers는 네델란드 신앙고백서를 강해할 때 이 점을 오해했다. “성경의 위치와 권위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Jack Rogers &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122.

권위가 우리 마음속에 입증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제 5항의 같은 문맥에서 이 고백은 분명히 성경권위에 대한 증거가 성경 자체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자체에 자신에 대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성경에 본래부터 있는 권위에 대한 증거는 너무 분명해서 "소경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제5항)".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자증은 우리 마음속에 성경권위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보증하는 성령의 증거(testi-

monium Spiritus Sancti)에 대한 언급과 병행하여 동등하게 지적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인식이 성경의 자증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델란드 신앙고백도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증거나 그 자증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말씀과 성령의 일치(consensus)를 유지한다. **미수박**

IV.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권위관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과 두 개혁교회 고백서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 이후 2세기 동안 교회의 역사적 신앙 속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관련하여 성경권위가 어떻게 전수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개해 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신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정말이지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현대 비평가들의 비평의 여지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비평가들은 자기들의 관심과 또 다른

의도때문에 개혁자들의 견해를 옹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두 개혁자들의 성경권위에 대한 굳건한 입장 (특히 칼빈의 입장) 이 두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잘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 고백들도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개혁자들과 동등한 견해를 취하고서 성경을 구원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법칙으로 받는다. 교회는 이 확정된 교리를 고백으로 채택하고 수세기동안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해왔다. 사상의 조류가 급변하고 이러한 교회의 고백의 내용이 아무리 심하게 도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견고하게 이 고백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요, 그 권위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이다.